금호, 합성수지 영업이익 "급감"

합성수지 1Q 매출액은 11.6% 증가 … 영업이익은 54.1% 줄어

금호석유화학이 합성고무 실적호조에 힘입어 1/4분기 매출액 3374억원, 영업이익 291억원을 달성했으나 합성수지 부문에서의 영업이익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금호석유화학의 합성고무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20.1% 증가한 1555억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은 40.3% 증가한 167억원을 기록했다.

그러나 합성수지 부문에서는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1.6% 증가한 1549억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재료 가격의 강세로 인해 영업이익은 전년동기대비 54.1% 감소한 34억원에 그쳤다.

경상이익은 471억원으로 2003년 4/4분기 473억원의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으며 지분법 평가이익은 284억원을 기록했다.

그러나 2003년 4/4분기보다는 사정이 나아진 것으로 평가되는데 2003년 4/4분기 합성수지 매출액이 1557억원에서 2004년 1/4분기에는 1549억원으로 0.5%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은 27억원에서 34억원으로 25.9% 증가했기 때문이다.

금호석유화학의 경영실적 (단위: 100만원, %)

구 분	2003.1Q	2003.4Q	2004.1Q	전기대비	전년동기대비
매출액	295,840	331,969	337,355	1.6	14.1
영업이익	25,210	30,956	29,142	▽5.8	15.5
경상이익	-1,179	-47,260	47,096		
당기순이익	-2,894	-22,898	32,721		

동원증권은 합성수지 부문의 전망에 대해 ABS(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), PS(Polystyrene) 등은 여전한 국내외 수요부진으로 SM(Styrene Monomer) 등 원재료 가격 인상분이 판매가격에 반영되기가 어려워 고전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.

또 합성고무 부분에서 매출은 소폭 신장했으나 영업이익은 15.2%나 감소한 원인으로 Butadiene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요인을 판가에 완전히 전가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평가하고 원가상승요인이 1-3개월의 시차를 두고 전가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2/4분기에는 가격인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.

2/4분기에도 천연고무 가격상승 및 중국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4월의 합성고무 생산라인과 Butadiene의 정기보수로 2/4분기 영업이익은 1/4분기보다도 11% 감소한 259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.

금호석유화학은 2004년 매출액 1조3099억원, 영업이익 1092억원, 경상이익 1105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. <한기석 기자>

<화학저널 2004/04/19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